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 금향로가 차기까지

February 2019



관련 기사 : 16 페이지

# contents

## 리더십 칼럼

4 열려 있는 기회의 창 - 난민선교

## 발행인 단신

7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 안나의 골방

10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조롱당할 때...

## 터키는 지금

13 외국인들, 터키 자산 매입 자속

14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터키

16 처음으로, 그리스 총리가 터키의 폐쇄된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를 방문하다

## 이슬람 알기

17 무함마드에게 대한 무슬림의 한신 3,

이슬람의 근원을 살펴보기

## 중동지역의 오늘

20 이란, 향수와 위협으로 얼룩진 이슬람 혁명 40년

24 알제리 정부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경고

## 파트너 칼럼

26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 동역단체사역

30 하비비 선교회: 열린 예지디족 선교의 문

## 특별기고

32 2019 교회개척운동 불지르기

**2019년 2월 22일 통권 102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릇, 이은옥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 표지설명:

그리스 총리가 터키 그리스정교회  
신학교 방문 (16p)

### 실클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http://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mailto:info@silkwavemission.com)

### 실클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길 33 1층

Tel: 010-2100-4237

###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용호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김민섭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진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 (SWM 선교회)

###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하오름교회 (송주한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매클린하안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상광장로교회 (이철호목사, Los Angeles,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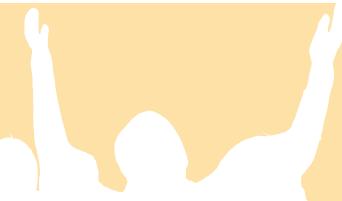
엘에이연합기도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재건남가주교회 (이병상목사, Hawaiian Garden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하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진진 목사, Colorado Springs, CO)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올해 4월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가는 팀들이 잘 동원되게 하시고, 현지에서 받는 팀들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 올해 4월 아웃리치를 위해 현재 준비하는 SWM 본부와 리더십의 많은 사역들(교회 방문/집회/준비기도회/킹덤스쿨 등)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 올해 아웃리치 사역들로 인하여 현지(터키, 이집트, 시리아, 쿠르디스탄)에서 사역하는 교회개척자들에게 큰 힘과 격려 및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어진 추수밭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게 하소서. SWM 재단(Bakif/바크프)이 올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터키에 세워지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없는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 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 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로 여호와의 군대(겔 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 62:6-70)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열려 있는 기회의 창 난민선교



글: 김승욱목사  
(SWM Korea 이사장, 할렐루야교회)

제가 남가주에 살았을 때 해변을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핑(surfing)하러 나온 청년들이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 물에 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문가들에게는 “그 파도가 그 파도인데”라고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저 ‘식상한’ 파도가 있는가 하면, 멋지게 서핑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파도’가 항상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바로 그 파도를 보내주셨다고 감탄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는 직접 그 현장들을 둘러보며 그 파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뉴스와 간증들을 통해 많은 소식을 들었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우선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시어 역사하셨는가, 주님께로 돌아온 무슬림 형제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슬림들을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이 없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마실 샘물을 찾게 하십니다.(창 21:14-20)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무슬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저는 또한 준비된 일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 많은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리아에서 대학을 다니며 영어에 능숙한 자들이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하며 복음사역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의 통역자로



준비된 난민 일꾼들과 함께





일하다가 복음을 접한 자들이 오늘날에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도 난민이 되어 나와서 언어소통이 가능한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어의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많은 일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그동안 세계교회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전하셔서 오늘날 천만 명이 넘는 교회로 일으켜 주셨고, 선교에 헌신 된 일꾼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일꾼들을 일으켜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긴급함이었습니다. 지금 허락하신 이 엄청난 추수가 항상 있을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긴급함이었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기회의 창(a window of opportunity)은 곧 닫힐 수도 있습니다. SWM의 사역자들은 약 5년에서 7년을 기회의 창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일어나 이슬람권 선교에 뛰어들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재건과 개조의 종 책임을 맡았던 맥아더 장군은 그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보내 달라고 미국에 호소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구조의 새로운 기반도 필요하지만, 황폐된 그 땅을 진정 새롭게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심령이 가난해질 날이 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양 사회는 그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아직도 복음의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남가주 서핑의 광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파도가 생기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 파도를 타려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놓치고 미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놀라운 영적 파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SWM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현장의 기도제목들을 우리 중보기도자들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능동적이며 공격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세례받고 있는 난민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팀 리더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맥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난민교회들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SWM 사역자들을 통해 인도받은 현장들은 제가 모든 교회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지역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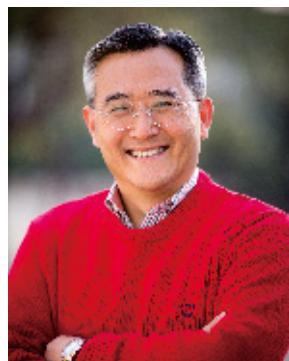
또한 무슬림 교회 개척자들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도처럼 보내 주신 무슬림 난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들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저들과 같은 언어와 정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같은 문화권에 속하여 있고 저들의 아픔을 같이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다만 재정이 부족한 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SWM 본부는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꿈과 같이 보였던 이슬람권 선교가 오늘날에는 놀라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 아름답게 사용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Glory)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kavod), 헬라어 '도싸'(doxa)인데 무게(weigh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External manifes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존재가 밖으로 표현되다 혹은 드러나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난 대표적인 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출 19:16)가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임재(Presence)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곧 그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Being)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고 그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3)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 둘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





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 2:9 -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제자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곧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엡3:13)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990년 초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멕시코 남부 정글에서 살고 있는 인디안 마을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멎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독충에 물리는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그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02년 러시아 선교지에서 인간적인 외로움,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 강도의 위험, 미국 스피아, 이단이다라는 언론의 공격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겨울, 주위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중에 차가 고장나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2000년 1월 저희 가족이 타고 가던 배이 빙판길에서 뒤집어지는 큰 사고, 추방을 당한 사건 등 많은 어려움이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운 선교지 터키로 부르심을 받아 새 언어와 문화의 적응, 더위, 경찰의 감시와 조사, 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해야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터키 목회자의 배교, 직원의 배신, 동료들의 모함과 공격, 2년 이 넘는 아내의 식도암 투병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시역하시는 22 유닛의 선교사님, 38유닛의 현지교회와 난민교회개척자들과 파송/후원 교회들을 연결하는 다리(bridge)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 북이라크 쿠르디스탄 예지디 난민, 이집트의 시리아 난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펑박과 고난 중에 있는 크리스천 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웃리치사역이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터키, 이집트,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예정되어 있고 여러 교회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그 땅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고난의 삶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3)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4)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고전 6:20).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전 10:31).





##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조통당할 때...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다윗이 그 아들 암살롬을 피해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그 아들 암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암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길 기다리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낙담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에 일어난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한다더니,  
믿음의 삶을 그렇게 외치더니,

기도하면 만사형통하다더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때,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을 때,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감정도 우리 감정이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구나>라고 할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숨고 싶고, 떠나고 싶고, 더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기 싫고, 내처지를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시즌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암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을 만난 자가 있을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왕의 기름부음 때문에 암살롬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대에 쫓기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여기저리 떠돌아 다녀야했던 다윗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자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는데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왕





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남이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아들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디윗의 삶에 일어났을까요?

그럼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가요?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예상치 않는 질병, 사업의 실패, 부모님의 치매, 간염기 우울증, 자녀들의 방황, 재정적 위기, 이혼, 배우자의 죽음...

여전히 나혼자만 이런 상황에 처한듯 하고, 여전히 나혼자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듯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듯 하고,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날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로 인해 내 마음은 쪼그라들어 믿음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디윗의 고백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디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3:3)**

디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방패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랍니다. 압살롬에 쫓기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디윗은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신의 목숨을 원함에도 죽지 않고 피할 길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결국은 디윗의 모든 수치를 벗기시고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심을 확신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윗의 삶에는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

의 영광을 회복하셨으며, 디윗의 실의와 좌절과 수치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라는듯이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땅에서 디윗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만,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씻으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실것이며,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네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결국을 알기에 오늘도 진리 위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3:3)**

디윗은 그러한 상황일 때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디윗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시편 3:3절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디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끈질기게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때 디윗이 경험한 것은 디윗의 상황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자고 깨는 매일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들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불들고 계신다는 것,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불들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것을 알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생명이 적에게 노출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들고 계시기에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불들고 계심을 아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내 생명이 주님께 불들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악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북풍이 불어닥치는 일상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을 파고하려는 천만의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함이 되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신을 불들고 계시는 여호와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꺽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불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께 불들린 바 된 인생이라면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불안

함도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좋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 불들린 바 된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자고 깨어날 때마다 내 삶이 정말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현존하심 안에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보배를 찾으라고 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 보화를 찾고 캐내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존귀케 되고, 보화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은을 구하는 것 같아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아 그것을 찾으면 (잠 2:4) 이는 그들로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이니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라 (골2:2-3)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욥 22: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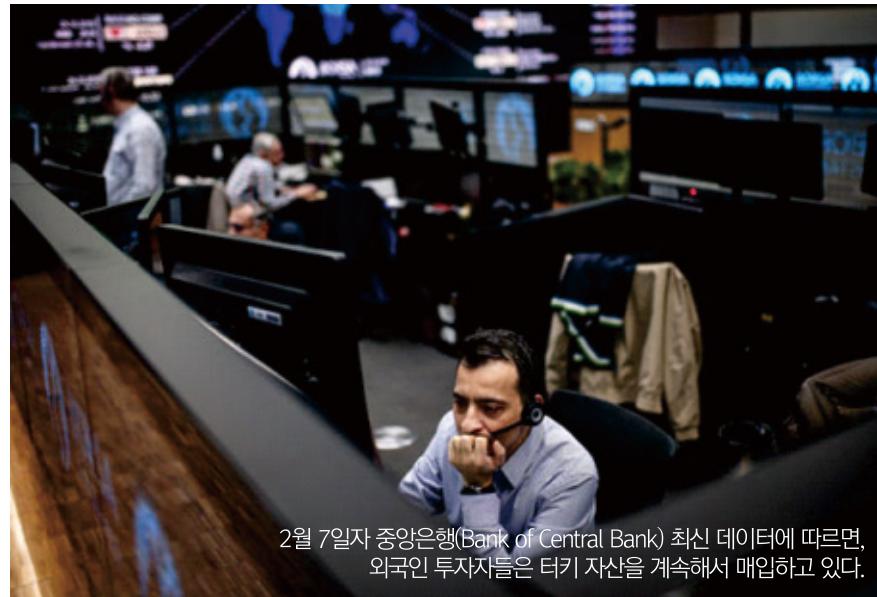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계 3:18)**





## 외국인들, 터키 자산 매입 지속

글: 휴리에트 데일리 뉴스 앙카라(2/7/2019)  
번역: 한국번역팀



데이터에 따르면 비거주 투자자들이 2월 1일 주말에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터키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지난 2주간 주식 시장에 3억 2천 2백만 달러의 유입과 또 다른 3억 2천 2백만 달러의 유입을 가지고 왔다. 1월 18일 주말에 외국인들은 7억 1200만 달러 상당의 터키 주식을 사들였다.

비거주 투자자들의 터키 주식 보유 가치는 1월 25일 341억 천만 달러에서 2월 1일 현재 352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 말 비거주자들(외국인들)의 터키 주식 보유 자산 가치는 296억 달러에 이른다. 비거주자들은 또한 정부 채무 증권 1억 6천만 달러를 매입해 지난 5주 동안의 추세를 뒤집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외국인들이 총 9억 6천만 달러의 정부 부채 증권을 매각했다. 은행은 1월 25일 183억 3천만 달러에서 2월 1일 현재 외국인의 정부 채무 증권 보유액의 시장 가치가 192억 5천만 달러라고 보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은행은 2월 1일 현재 총 외환 보유액이 매주 36억 달러 증가한 770억 6천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금보유량도 1월 25일 199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증가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foreigners-continue-buying-turkish-assets-141085>





##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터키

글: 데일리 사바, 양카라 (2/5/2019)

번역: 한국번역팀

터키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다. 터키는 학업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매력적인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약 50만 명의 유학생을 끌어들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터키 고등 교육 협의회에 따르면 약 115,000 명의 유학생이 현재 터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위한 전세계 상위 10개 주최국 중 하나이다. 터키어 장학금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약 5,000 명의 학생들이 매년 장학금으로 터키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장학금 및 세계 수준의 교육 외에도 학생들은 활발한 사회 생활, 다문화 사회 및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이유로 터키를 선택한다.

이스탄불 상업대학에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출신 파이즈 빈 알리는 아나톨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터키가 무역의 중심지이며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 및 컨설팅 회사 이사인 알리는 2016년에 국제 무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비정부기구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세미나, 회의 및 기업 교육에 참석했다.

인도 뉴 델리의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 대학의 터키학부 부교수 누샤드 MK는 “터키는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해 꿈의 나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누샤드는 2012년 이스탄불 대학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교육적이고 개인적인 꿈을 이룬 후” 인도로 돌아왔다.

“터키의 문화적, 역사적 풍부함이 터키를 제2의 고향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터키는 문화적, 역사적 풍부함이 독특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외부인, 특히 인도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또한 터키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종 차별 주의자가 아닙니다. 인도인을 제 3세계 국가의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의 시민으로서 누샤드에게는 이스탄불의 생활이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여 더 쉬었다. “터키의 삶은 인도에 비해 빠르고 비쌌습니다. 이스탄불은 지역 주민들로 너무 불비지만, 나의 고향 델리에 비교해보면 괜찮았습니다. 터키 사람들과 그들의 대우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터키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동안에 인도 북부의 무슬림인 누샤드는 터키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와 안전을 경험했다. “터키에서의 유학은 내 비전을 넓히고 본국에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온 후에 고국에서 받은 좋은 대접과 존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스탄불의 마르마라 대학에서 계량 경제학을 전공한 마케도니아인 무신 커티스는 터키에는 동양 문명의 모든 특성이 있어 고등 학문 연구를 위한 국 가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아나돌루 통신에게 말했다. “나는 조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터 키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에 거주하면서 체류허가 절차에 어려움 을 겪었던 것을 떠올렸지만 2013년 아주 관리 총국이 설립됨에 따라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는 터키는 사회 활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행사를 가득차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스 포츠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추가하여 스터디 투어 및 여러 다른 활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의 국제학 석사인 페난 모함마드 바시르는 터키의 여러 대학에서 학 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의 관계 및 수많은 과외 활동을 통해 유학 생은 하나 이상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4개의 벽 안에서 진행되는 정식 교육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뿐 아니라 어느 국가도 쉽지 않은 일이 지요. 그러나 우리가 터키를 우리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낸다면 나는 이스탄불에 서의 유학 생활 동안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고 그는 밀했다.

출처: <https://www.dailysabah.com/education/2019/02/06/turkey-offers-opportunities-for-foreign-students>





## 처음으로, 그리스 총리가 터키의 폐쇄된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를 방문하다

글: 칼로타 갈(뉴욕타임즈, 2/6/2019)

번역: 한국번역팀



헤이벨리아다 섬, 터키 - 유명한 터키 내의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를 강제로 폐쇄한지 48년이 지난 오늘, 무슬림 국가인 터키에 사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손님이 그리스의 터키 방문 첫번째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위해 검정색 사제복을 입은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은 수요일에 붉은 카펫을 깔았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에 자리잡고 있었던 오랜 기독교 학문의 할키 신학 대학원은 터키 이스탄불 근처 언덕 위에 있다. 이 유서 깊은 신학교에 도착한 치프라스 총리의 역사적 방문은 터키의 작은 그리스인 공동체에게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고 터키 정부가 할키 신학교를 다시 여는 것을 허락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전세계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를 들뜨게 하고 있다.

마르마라해의 헤이벨리아다 섬에 있는 신학교 방문은 화요일에 수도인 앙카라에 있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치프리스 총리의 이틀간의 여정이었다. 두 지도자가 두 나라 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적대감에 의해 위축되었고 그들 사이의 많은 분쟁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진전되지 않았다. 그 대신 주목할 점은 성 포티오스(St. Photios)의 기념일에 그리스 총리가 신학교에 가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성 포티오스는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에 있던 9세기에 수도원을 이 곳에 세웠다.

Source: <https://www.nytimes.com/2019/02/06/world/europe/greece-tsipras-halki-seminary.html>



## 이슬람 알 기

# 무함마드에게 대한 무슬림의 헌신 (3) 이슬람의 근원을 살펴보기

글: 말릭 이브라힘 (COMMA 2018년 10월 뉴스레터)  
번역: 한국번역팀

### 들어가는 글

- "이슬람 알기"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첫 글로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1, 2, 3)"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세션을 통해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열리고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1은 2018년 11월 금향로가 차기까지에 소개하였고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2는 1월호에 소개하였다.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3 (마지막 글)은 2월호에 싣는다. 잃어버린 영혼들인 무슬림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금향로 편집인)

몇 년 전, 나는 젊은 명목상 무슬림이었던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 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리스 도와 그의 이슬람 전통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무함마드와 그를 예언자로 어떻게 믿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함마드의 인간됨을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슬림 남자는 내가 이상화된 무함마드의 그림에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화를 냈습니다. 제 경험 상 거의 모든 무슬림들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를 비난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 즉 대화가 끝나 버리거나 논쟁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나는 이슬람 선지자에 대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여러 유형의 이슬람교도를 인터뷰했던 이 시리즈의 처음 두 부분을 이미 소개했습니다.<sup>ii</sup>

여기 3 부에서는 무슬림들이 원래 이슬람 근원으로부터 이 무함마드에 대한 고귀한 견해를 이끌어 내고 무슬림들에 대한 사역에서 이러한 묘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꾸란에서의 무함마드의 특징

꾸란이 나타내는 무함마드의 이미지는 그가 "고귀한 성품"(수라 68:4)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심을 나타내었고(수라 16:127), 신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수라 3:159) 친절하고 자비롭다고 주장합니다(수라 9:128).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묘사를 직접 거부하면 무슬림 친구 와의 대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함마드의 이미지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

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11절을 우리 친구와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무슬림의 마음에 무게를 두는 질문입니다.

## 무함마드의 출생과 유년기 이야기

무함마드의 초기 전기 작가<sup>[9]</sup>는 무함마드를 고귀하게 묘사하여 숭배와 헌신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사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하자 카리모寇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기 논문에서 무함마드의 초기 삶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슬람이 마지막 계시임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함마드의 개념과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무함마드의 어머니 아미나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몸에서 빛이 발산되어 그녀는 “시리아에 있는 부시라의 성”을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탄생했을 때, 별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디나에 있는 유태인. 이 이야기들은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특별한 아이였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치 소년으로서의 무함마드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븐 이스학은 두 천사가 그를 방문하고, 그의 내면을 열고, 정화시키고, 악한 검은 방울을 추출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함마드는 예언자로의 부름 직후 천사들의 또 다른 정결작업을 견뎌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소년으로서 씻어낸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sup>[10]</sup> 이러한 정결 내리티브의 핵심은 무함마드가 꾸란을 전하는 그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환상적인 본질을 제쳐 두고, 나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한 일부 이라크 무슬림들에게 마가복음 2:1-11에 있는 동방 박사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 현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에 정말

로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어떻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주님 예수 자신이 모든 민족의 왕이됨을 보여 주었는지를 강조하는 위대한 구절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발견된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집트로 피하셨던 예수의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폭정과 박해로 인해 피난민으로 고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23절은 마리아와 요셉, 예수께서 피난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 메디나에서의 무함마드

이븐 이스학은 메디나에서의 무하마드 시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참호 전투는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메카 침략군으로부터 성지 메디나를 보호하기 위해 메디나 주변의 참호를 파는 동안, 무함마드는 물을 사용하여 참호 파는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큰 바위를 분쇄합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 빵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를 많이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참호를 파 내도록 합니다. 파고 있는 동안 그의 도끼에서 빛이 발사됩니다. 이 마지막 기적은 분명히 무함마드가 세계를 정복하는 상징이었습니다.<sup>[11]</sup>

무함마드에 관한 이 이야기들과는 달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 (마 15:29-39, 막 8:1-13, 뉘 9:1-17, 요 6:1-24)과 풍랑을 잡잡케 한 것 같은 자연의 기적 (마 8:23-27, 막 5:35-41, 뉘 8:22-25)은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결론

꾸란과 이슬람교 전기 문헌에서 이 이야기들의 목적하는 것은 무함마드를 모방과 헌신에 합당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에 공유한 이슬람교도 친구의 적대적인 반응을 설명합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복종하는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함마드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장사지냄 및 부활의 절정을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예배와 헌신에 참으로 합당한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고전 15:1-6, 17-20; 골 2:15; 계 5:5-10).

---

[1] 이 시리즈의 1부와 2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이븐 이스학은 무함마드 시대로부터 약 100 년 후인 8 세기에 무함마드에 대한 그의 전기를 썼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Ibn\\_Ishaq](https://en.wikipedia.org/wiki/Ibn_Ishaq)

[10] Ibid . 67p

[11] Ibid. 451-452 p



## 이란, 향수와 위협으로 얼룩진 이슬람 혁명 40년

글: 타마라 킬브라위,  
프레드릭 플라잇겐 그리고  
클라디아 오토(CNN 2/11/2019)  
번역: 한국번역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2019년 2월 11일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에서 이슬람 혁명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테헤란, 이란(CNN) -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중 앞에 서서 미국의 압력과 제재를 무시하고 자국의 군사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맹세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서양식 군주제에서 이슬람 신정 정치의 길을 닦았던 군주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정부 전복을 기념하기 위해 테헤란의 아자디(자유)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란은 군사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에 이란에 다시 부과한 경제 제재가 오히려 이란 군대, 즉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란 정부의 결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테헤란은 기념일 집회를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려고 노력했으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늘 미국의 심리적, 경제적 전쟁의 목표물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적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야 하며 서로의 도움과 원조로 우리는 미국의 면전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로하니가 월요일에 말했다.

### 미국에게 죽음을

혁명적인 노래들과 혼합된 꾸란의 구절들을 혼합한 리사이틀에서 바다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란 깃발과 데모 배너를 들었습니다. 메인 광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배치된 정보





시위대가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를 포함해 상징적이고 혁명적인 인물들의 실제 크기 이미지를 들고 있다.

끼이에서 볼 수 있도록 이곳에 왔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학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고 마크소드는 덧붙였다.

팜플렛, 라이브 라디오 쇼 개최 및 이슬람 및 민족주의 찬기를 부르는 어린이들을 방영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말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품페이오와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32세의 모하메드 레자 마크소드 성직자는 오랫동안 이슬람 공화국의 축하 주요 요소였던 선동적인 노래를 언급하며 말했다. 마크소드는 금요일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연설에서 “미국에 죽음”은 트럼프와 국가 보좌관 존 볼튼과 품페이오에게만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오늘 행사를 더 가

## 이슬람 공화국과 충돌하면 실패할 것

이란 군대의 엘리트 혁명 수비대장도 아자디 광장으로 행진하는 군중 속에 있었다.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모함메드 알리 자파리 소장은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립과 함께 이란은 모든 종류의 침공에 대해 방어할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CNN에게 말했다.

자파리 소장은 이란의 “확장된 국방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이슬람 공화국을 “무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과 다른 강대국들은 이슬람 공화국과의 충돌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자파리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전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전쟁을 시작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저항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열정

이란 당국은 기념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며칠간 국영 TV 방송은 1979년 항의 시위 장면을 기록한 자료를 방영했다. 그들은 14년 만에 테헤란에 도착한 최초의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혁명 비디오를 다시 방영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는 군중들이 “서방 제국주의”的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백만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란인들은 분명히 ‘그렇다,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슬로건으로 전달한 것이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했고, 리알 통화가 급감했으며, 식량과 의료 부족으로 인해 이란 전역의 가정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란인들은 이미 1980년대 이라크 와의 8년 전쟁을 겪어냈기에 고통에 낯선 민족이 아니며, 이란 국민들은 “굳건함”을 지켜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요일 밤, 불꽃 놀이가 테헤란의 하늘을 밝히고 일부 보수적인 이웃들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시다)의 외침을 울려퍼지게 하였다. 이것은 정확히 40년 전의 혁명에서 종종 떠올랐던 장면에 대한 찬사들이었다. 그 밤에 팔레비 샤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기 전에, 이란 사람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발코니를 두드리며 수도전역에 반향을 일으키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란 혁명 기간 중 이란으로 돌아온 뒤 테헤란 대학에서 군중들을 맞이한다.

## 불평등의 확산

당시의 많은 이란 혁명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슬람 혁명 시위에 참여한 사업가 아볼카센 사피는 “우리는 국가를 더욱 종교화하기 위해 문화적 변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혁명 이후, 문맹 퇴치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농촌과 지방에서는 의료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이 좋아졌다. 그러나 이란 내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장후와 정부 부패와 정체성은 지난 40년간 국제 제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 동안 이란 내 풀뿌리 차원에서 큰 저항이 있었고, 이는 시위 운동에 의해 입증 되었듯이, 부패와 국내 큰 문제인 관리와 관련한 문제



이란의 시위자들은 지난 10년간 ‘최악의 정부 탄압’에 직면해 도전중이다





월요일 기념식을 즐기고 있는  
이란 국민들

그는, 그러나, 이란이 신정 정치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잃어버린 사회적 자유를 되찾기를 원하면서도 샤의 시대에 대한 향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40년 전에 혁명에 참여했던 그의 아버지도 이슬람 혁명가들이 한 일을 되돌리기 위해 이번 시위에 참가했고 “혁명 이전으로 한 발 뒤로 물러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현 정권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런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이며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고립시키고 반정부 시위자를 지원하려는 시도들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정권에 맞서게 하기 보다는 전쟁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켰을 뿐이라고 이란 사람들은 말했다. “내 친구들과 나는 시리아와 이라크 같은 전쟁보다 이 체제에 충실하겠다”

유럽 대외 관계 협의회(ECFR) 선임 정책 연구원 엘리 게란마예는 이란과 서양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미래를 거는 거래에 대해 “깊은 불신”과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협상에 복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까지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의 쉬자드 보졸그메르, 사라 마즈롬사키, 자라 올라 및 사무엘 콰쉬-이둔이 이 보고서에 기여했다.

를 실제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럽 대외 관계 협의회(ECFR) 선임 정책 연구원 엘리 게란마예는 말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로 하니 정부 뿐만 아니라 권력을 얻게 되는 다음 정부에게도”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20대 후반의 한 남자는 “나는 이 기념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알제리 정부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경고:  
만일 아이들이  
관대하고 행복해  
보인다면…  
아이들이  
크리스천일지도  
모릅니다.

글: 마크 엘리스  
(God Reports 11/14/2018)  
번역: 강우석 (LA연합교회)



알제리의 성도들

알제리는 95%가 이슬람교를 따르며 크리스천은 2%가 채 안됩니다. 정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하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예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모독법을 제정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정부가 교회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몇몇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크리스천 리더 한 분이 SAT-7(중동 복음방송)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행하는데, 100명 넘게 세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부 관료가 세례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뾰伟大复兴입니다. “정부는 우리 교회와 다른 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 직면할수록 교회는 더더욱 강하게 자리날 것입니다.” 그가 SAT-7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정 교회들은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정부 관료들은 모순되는 경고를 이란 내에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관대하고, 쾌활하며,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말에 순종적이고,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들이 지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 가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의심하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은 참 슬프게도 모순적입니다.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비극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 22-23)

SAT-7 복음 방송선교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팝박 받는 믿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보호 되고, 지하교회의 일부가 되어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Source: <http://blog.godreports.com/2018/11/warning-from-government-to-parents-if-you-see-your-child-for-giving-happy-they-may-be-christians/?fbclid=IwAR1tR0A7ZUoLDfl8FcURelVRjxwRrN6DurUdvd35ZhkBu33G5iXEbi1sqc>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글: 김요엘 선교사  
 (국제선교동원본부 (IMM)  
 중동북아프리카 동원담당)

올해는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첫 10년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교회개척사역을 했고, 나머지 10년은 지금까지 중동 이집트에서 선교 동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슬람권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미전도종족이라는 개념을 그 때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이슬람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대학원 국제학과에 가서 이슬람 개론도 수강하였고 여러 코스와 훈련을 받으면서 이슬람에 관심을 갖다보니 어느새 선교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처음에는 제자훈련/교회개척 외에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만이 선교인 줄 알았지요. 지겹도록 한 우물만 팠습니다. 단순/집중/반복이 현신으로 일어날 때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사역자들을 냄새만 맡으면 철저히 즉시로 모두 추방해 버렸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무슬림 개종자들을 데리고 교회개척을 하는 일은 결코 녹녹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001년 911사태가 터졌을 때 다 추방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나마 전문인으로 비자를 받으며 남아있었던 몇몇 외국선교사들도 위험 때문이었는지 자진출국해 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선교사가 우리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저희들 지하가정교회도 발각이 되고, 저를 미국 정보요원으로 간주하고 불법모임을 만들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어서 우리 교회개척팀 전체가 추방을 당했지요.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후 몇 년씩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세 번이나 방문관광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당히 수위가 높은 블랙리스트 기록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중동 이집트로 오면서 저희 사역의 핵심이 교회개척(CP)에서 동원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억의 인구에 거의 1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주민등록에 기독교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무슬림이 교회를 가게 되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방화, 기독교인 살해 등 수많은 박해가 아직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 전통적인 콥티 교회성도가 약 800만 명이고 나머지가 개신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로교회만 해도 전국에 450여개가 되고 - 아직도 인구에 비하여 턱도 없는 적은 숫자이지만 강한 이슬람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 중동아랍권 지역에서 가장 큰 약 4천 명 이상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대형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사막 유목민인 베두인, 베르베르 등 아직도 철통같이 문을 닫고 있는 무슬림들의 집단인 미전도종족들이 포진하고 있

긴 하지만, 그들을 향한 교회개척도 결국은 여기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9,0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고, 헌법으로 이슬람종교를 국시로 정해놓은 국가이므로 강력한 이슬람국가 중 하나임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동원’을 얘기할 때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원하면 선교사를 모병하러 온 것으로 일단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경직됩니다. 혹시 자신들이 키워놓은 귀한 목회인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선교는 좋다고 하면서 선교사는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역할도 당연히 동원사역의 영역 안에 일부이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동원사역의 핵심은 지역교회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성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동원가는 성경적인 교회론(Biblical Ecclesiology)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동원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야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물론 제자훈련과 교회개척사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전에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교회론에 불과했습니다. 교회론에 선교가 빠지면 그것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계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은 Mission Planting(MP) 사역입니다. 아직 교회존재론적인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지역교회들에게 철저하게 지역교회의 존재목적과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선교를 심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목회전문가이신 목사님들이 갖지 않은 영역에서 동원전문가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회에 걸맞는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자를 수확하는데 호미를 써야지 낫을 쓰면 감자를 다 잘라놓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동원사역은 지역교회에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른 동원신학의 영역입니다.

목회는 일단 목양(Pastoring)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대상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문화선교에 대한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 특히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고 의도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신조어를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를 Pastor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용어가 무의식 중에 주는 한계에 자신도 매여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그머니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수준높은 한국성도들은 다 배워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자’하면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교회의 참 성경적 역동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는 성가, 즉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전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려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5가지의 직능,  
즉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책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항존해야 하는 직능들입니다

문성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친양하는 자의 마음 중심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칭했던 '친양대'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려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5가지의 직능, 즉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책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항존해야 하는 직능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사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사도를 임명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 목양(pastoring)의 역할은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등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네트워크 안에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안디옥교회가 사도바울의 선교팀을 파송할 때 그들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행13:1).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현재 지역교회들의 문제는 목사의 직책을 가진 지도자 또는 그가 속한 교회네트워크 (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에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그 부족해진 교회의 직능을 채워야 하는 리더십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동원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의 영역에서 지역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중심 만이 아닌, 복을 열방들에게 나누는 자로서의 교회의 성경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원사역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사49:6)'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과녁을 빗나가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이스라엘)를 경각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교회)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단, 요나선지자만 예외입니다. 동원사역의 대상은 지역교회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선지자사역은 동원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기들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크고 날카롭게 불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4)**

요한복음 11장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원사역에 대해서 깨달은 것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요11:4)'이라고 하셨습니다. 하

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며 의도적으로 즉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시풍습대로 시신을 베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살아난다 해도 얼굴도 완전히 동여있기 때문에 눈도 가려져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몸통에 묶여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기동성 불능, immobile 상태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에 동여 매여 있어서 앞을 볼 수도 없고 팔다리가 작동할 수 없으니 걸을 수도 무엇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원을 영어로 Mobilization 이라고 합니다. 기동성이 묶여 있는 것에 기동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mmobile했던 것을 Mobile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바로 탁월한 동원가 이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동원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베를 풀어놓아 교회가 원래 주셨던 교회의 선교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말입니다. 교회들은 이제 풀려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일 때입니다.

동원사역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원사역의 대상은 지역교회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선지자사역은 동원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가들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크고 날카롭게 불어야 합니다.

## 하비비 선교회: 열린 예지디족 선교의 문



글: 이세웅 편집인  
simonlee@silkwavemission.com



2019년 2월 9일(토) 오후 5시 하비비 선교회 2019 비전의 밤이 열렸다. 남가주 웨스트민스터 로즈센터극장에 약 200명의 동역자들이 모여 2018년 하나님께서 쿠르디스탄 예지디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신 내용을 보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하비비 선교회 웹사이트 <https://habibi-international.org/>)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하비비 선교회의 예지디 난민사역은 2014년 8월 터키 동남부 디야르바크르에서 시작되었다. 터키 동남부 슬로프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북이라크 신갈 산에 살던 한 민족이 IS의 대량학살을 피해 가장 가까운 나라인 터키로 밀려들어 온 것을 터키 방송이 보도하였다. 그것을 본 터키 교회의 지도자 몇 분이 그들의 땅을 찾아온 난민들을 돋기 원하여 “원패밀리 원텐트 캠페인(난민 한 가족 약 20명이 한 텐트에서 살게하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터키 교회 뿐 아니라 외부의 동역자들에게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SWM 선교회도 터키교회를 통해 이 때부터 난민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위해 터키 교회협의회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이 위원회의 7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예지디 난민들을 돋기 위한 난민사역이 그것발을 들게 되었다.



2014년 12월 터키 디아르바크르를 방문한 중국계 미국인인 월리 텐 형제는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며 터키에 들어온 예지디 난민들을 돋기 시작하였다. 유엔이 쿠르디스탄(북이라크) 도록에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23개의 예지디 난민캠프 (50만 명을 수용)를 지원하면서 도록으로 사역을 집중하였다.

은행업에 종사하던 월리 형제와 의료인 아내 크리스티는 2016년까지 자원봉사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2017년 하비비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월리 형제는 직업을 그만두고 전임사역자로 헌신하게 된다.

지난 2018년에 하비비 선교회를 통해 북이라크 쿠르디스탄 사역에는 23개의 단기팀들이 참여하였다. 12개월 중에 9개월을 사역하였는데, 주 사역인 의료사역팀과 교육사역팀 총 680명(연인원)이 참가하였다. 의사(외과, 내과, 암전문의 등), 치과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시간과 은사로 참여하였고 다양한 폭넓은 단기 봉사자들이 영어와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섬겼다. 2018년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며 쿠르디스탄 예지디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중국계 미국인 뿐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과 백인 동역자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2019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9개의 사역 일정을 통해 의료사역팀, 교육사역팀이 예지디 민족을 섬기게 된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개인이나 한 교회 그리고 한 단체의 힘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사역을 하므로 이전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많은 섬김을 세상을 향해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하비비 선교회를 통해 보고 있다.

하비비 선교회를 시작한 월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인 서기 635년 당나라에 복음을 전한 네스토리안 선교단을 통해 중국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수많은 펁박과 고난을 통과하며 이제는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예지디 민족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혼합한 종교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네스토리안들의 복음의 요소가 있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1400년만에 빛진 자로서 찾아가는 중국계 미국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꽂되고 열매맺기를 기도한다.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SWM 킹덤아웃리치의 한 사역팀이 하비비 선교회와 함께 예지디 민족을 섬기게 된다. 치과의사 2~3명이 더 필요한데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참가 마감은 3월 11일이다.

연락처: SWM 선교회 이세웅 선교사 simonlee@silkwavemission.com

# 2019 교회개척운동 불지르기



글: 헤드슨선교사 (이집트)

## 1.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만든 대표적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찢기시어 피를 쏟으시고,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 값을 지불하셨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 2.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선교전략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지역을 복음화 하는 전략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계속해서 재생산해야 한다.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가정은 존속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많은 일들을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이 가정이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부부 대에서 끝나게 된다. 부부가 자녀를 낳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낳아야 한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힘을 쓴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개척배가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데이빗 왓슨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배가 하지 않는 교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클럽과 같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했다.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강조한 말이라 생각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으시며 교회를 세우셨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다.

## 3. 교회 개척 배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1)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그것에 목숨을 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망이 있는 곳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전파했고, 선한 영향력을 지역에 끼쳤다.

## 2) 교회 개척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비전이 있는 교회 개척자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민족이든 교회 개척자가 있으면 교회는 생기게 되어 있다. 교회개척자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개척되게 되어 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개척자를 길러내야 한다. 성숙되고, 헌신되고, 준비된 교회개척자를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다면, 교회개척운동은 일어날 수 있다. 특별히 전방개척지역에 교회개척자를 길러내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a 터키 내 이란난민교회와 시리아 난민교회 비교

터키 내에 이란인 교회개척운동은 활발하다. 3~4만 명의 이란인 난민들 가운데 교회는 10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4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교회 수는 10개 남짓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 교회는 수많은 교회개척자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터키 내에서 이란인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헌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어 있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이 이란인 교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란인 난민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상황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 사역자들의 헌신도나 훈련도가 부족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 사역을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 가운데도 준비된 일꾼들이 부족하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준비된 교회개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터키 내에 시리아 난민교회개척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전도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개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더 절실하다.

### b 민족을 넘는 선교의 중요성

헌신된 많은 이란인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과 언어가 같은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것이 또한 이란인 사역자들의 한계이다. 이것은 이란인 사역자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눈을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란인 사역자들에게 이란을 넘어서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아프간 난민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안 좋은 것 이상으로 이란과 아프간은 더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란 사역자들은 겸손하게 아프간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한편에서 이란 사역자들이 겸손하게 아프간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하자 아프간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교회개척자로서의 일꾼은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집트 일꾼들이 많이 있다. 이집트 일꾼들을 보내어서 시리아 난민들의 교회를

개척하게하는 일들이 시급하다. 이제 2019년 6월이면 이집트 일꾼들이 터키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 **3) 교회개척자는 사도적 은사가 있어야 한다.**

중동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선교 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다니엘 싱클레어는 그의 저서 “열방이 주께 나아오다”에서 사도적 은사가 결핍된 팀들은 효과적인 교회개척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했다. 교회를 개척했던 팀은 반드시 그 팀 안의 멤버 중에서 누군가가 돌파형의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100 명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도적 은사가 있는 교회개척자가 필요하다.

### **4) 교회개척자들은 고난을 당한다.**

데이빗 게리슨의 “교회개척 배가운동”이라는 책에서 교회개척 배가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10가지 공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회개척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집트에서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한 목사님도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이는 결코 교회개척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 목사님은 난민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미을로 이사를 간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이란 교회개척자들의 대다수는 이란에서 감옥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렇듯 교회개척은 맷가가 따른다. 이 댓기를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 **5) 기도 없이 교회개척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마3:27절) 우리가 먼저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교회개척은 전쟁이다. 사단과의 치열하고, 피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의 성패는 기도에 있다. 교회개척의 용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 2019년 앞으로 이집트와 터키에서 일어나게 될 교회개척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사단은 마지막 진을 중동에 치고 있다. 사단도 복음이 중동지역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중동에서 발악을 한다. 이 강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한다.



## 2019 킹덤아웃리치 사역 안내

터키, 이집트 그리고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운동과  
난민돕기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참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의 추수밭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 일정(터키 시간): 2019년 4월 22일(월) – 5월 1일(수)

- 4/21(주일: 부활절) 미국 출발(오후 3시 이후). 한국 출발(4/22 오전)
  - 4/22(월) 이스탄불 도착 및 오리엔테이션
  - 4/23(화) 뷔육아다 섬 사역 (터키 아웃리치팀만 참가)
  - 4/24(수) – 29(월) 킹덤아웃리치 사역(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등)
  - 4/30(화) 비전나눔 및 연합기도회
  - 5/1(수) 귀국(각 자의 사역지로)
- (현지 사정에 따라 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 (마 9:37 – 38)